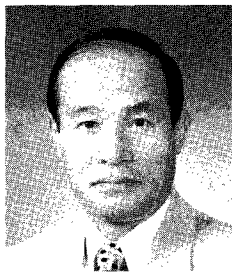


## 가금위생 해외뉴스

###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 새로운 닭 백혈병 바이러스(J. Subgroup)

새로운 닭 백혈병 및 육종군 바이러스가 전 세계 양계 산업에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검사된 이 백혈병 바이러스는 J아군으로 분류되어졌고 육용종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손실은 일정하지 않지만 20%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종계수의분과위원회는 이 질병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예방과 관리 방법이 종양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1) 위험지역에서의 예방관리 : 농장 주위의 수많은 병원체와 관리 요인은 육용종계에 닭 백혈병 바이러스(J아군)가 감염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바이러스의 대부분의 감염은 계군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영향이 적거나 거의 없다. 그러나 감염계의 종양 발생은 점진적인 쇠약과 더불어 결국 도태 폐사하게 된다.

닭 백혈병 바이러스(J아군)의 감염이 산란성적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음의 질병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 종양 발달과 수평 및 수직적 감염으로 인한 손실과 종양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 마렙 바이러스-마렙 바이러스에 조기 노출되거나 초강독형 면역 억제형인 마렙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마렙이 완전히 예방 되어지지 못한 닭은 골수세포성 백혈병에 감염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효과적인 MD백신 종류 선택이나 혼합백신의 사용, 그리고 농장의 위생관리와 소독으로 개선될 수 있다.

나) 세망내피증 바이러스(REV)-세망내피증 바이러스와 유사한 상호작용은 높은 종양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계 태어나 세포배양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생독백신에 세망내피증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확실한 백신의 품질보증은 세망내피증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 기타 면역억제 요인-여러 가지 요인이 닭 백혈병 바이러스가 감염시 적절한 면역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레오바이러스, 전염성 감보로병, 닭 전염성 빈혈바이러스, 곰팡이 독소는 가장 보편적으로 면역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다시 말하면,

- ① 모체 이행 항체의 증진
- ② 차단 방역위생관리에 의한 야외 병원체 감염 기회 축소
- ③ 적정 일령에 정확한 백신접종
- ④ 안전한 사료품질 유지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은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장의 방역관리와 소독의 중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다.

어린일령일수록 여러 가지 요인이 한가지 또는 복합으로 작용할 때 면역기능의 장애가 크게 일어나며 닭 백혈병 바이러스의 감염정도와 감수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오염된 계사(예 : 깔짚의 재사용 계사)에 입추된 중계는 닭 백혈병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병원체에 조기에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WP. '98. 1)

## □ 닭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1) 암수분리 사육 : 암수를 교배전까지나 합군하기전까지 분리 사육한다. 불가능하면 최소한 6주령까지 분리 사육한다.

이는 암수 사이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바이러스의 수평전파의 가능성을 줄여 준다.

2) 접종주사침 : 백혈병 바이러스는 오염된 주사침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분리육성기

간중에 백신 접종시에는 주사침은 암수 따로따로 사용한다.

3) 체중과 영양 : 권장하는 체중과 영양 수준에 따른 발육으로 일정한 성장과 면역기능이 발달하게 된다.

6주령까지는 백혈병 바이러스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의 감염을 극복하기 위하여 닭이 건강하게 육추되어져야 한다.

4) 사육밀도와 급이면적 : 과밀한 사육과 부족한 급이면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닭에게는 매일같이 순간순간 제공되는 강력한 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면역기능 억제와 중요한 원인으로 능력의 감소와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적절한 음수량과 영양 조건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필수조건이며 적당한 성장과 발육, 생존율, 생산성, 부화율, 건강한 초생추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다.

5) 암수비율 : 과도한 암수 비율은 암수 모두에게 스트레스이다.

특히 암수가 제한된 급이면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계군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공격적인 성격을 만든다. 수탉은 도전적인 성질이 있으므로 옥구불만이나 배가 고프게 되면 자기보다 약한 닭을 심하게 학대하는 악습이 생긴다.

더욱이 성성숙에 따른 호르몬의 효과는 수탉의 비율이 많은 계군에서는 수탉의 공격적인 습성을 더욱 강화한다.

따라서 적정 암수 비율의 유지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한다.(WP. '98. 1)